

보도시점 : 2024. 4. 14.(일) 16:00 이후(4. 15.(월) 조간) / 배포 : 2024. 4. 14.(일)

##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인프라 협력 강화

- 11일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 방문...폴 카가메 대통령 6월 정상회의에 초청
- 키갈리 그린시티, 부게세라 신공항 개발사업 등 신도시 분야 적극 협력

-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(4.11~12)하였다.
  - 이번 방문은 오는 6월 4일(화)부터 5일(수)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건설·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- 주요 일정으로 박 장관은 4월 12일(금) 에두아르 은지렌테 총리를 예방 하였으며,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폴 카가메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였다.
  - 한편, 에두아르 총리 면담(4.12) 및 지미 가소레 인프라부 장관 면담 (4.11)에서 르완다측은 키갈리 그린시티(시범사업 5만 평), 부게세라 신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, 31만 호 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.
  - 박 장관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법·제도 및 한국의 경험을 르완다에 적극 공유하고, 민관 합동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하여 르완다의 주택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, 정책자금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	우종하 (044-201-3526)
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사무관	홍종길 (044-201-4679)